24차 정기총회 회장인사

본회 제24차 정기총회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임원 및 시도 지부장, 그리고 각급 분 사무소장님들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당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림수산부 장관님을 대신하여 바쁘신 공사에도 불구하고 격려차 참석하신 김상범 사무관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정속의 개혁을 주도하는 신한국 창조의 문민시대를 맞아 우리 분야도 솔선수범 모든 힘을 합쳐 국가적인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본회는 1969년 설립된 미약한 생산자 단체였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선임회장단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충심으로 치하하고저 합니다. 최근 생산농가의 전례없는 생산의욕 저하와 무분별한 수입한약재 범람등 생산 기반이 그 어느때보다 열약해진 요즈음, 본회는 90년부터 계약재배 사업을 시도하여 생산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고 일부 품목의 생산여건이 점차 조성되면서,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으므로 본회가 추진한 사업중 가장 보람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멀리는 제주에서 가까이는 이천에서 또한 호남 남단에서 여러분은 땀을 흘리셨고, 그 열매는 현재는 비록 적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서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지난 92년에는 계약재배에서 12억여원의 수매 사업을 완료하였고, 과잉생산으로 판매 부진했던 작약과 패모 40여톤을 수매해 주므로써 생산 및 기술지도와 유통등 기반을 일부나마 구축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계약 생산해서 수매된 시호는 40여톤 1백만불의 금액을 수출로 연결하였으며, 향기 22톤 작약 34톤, 패모 6톤등 합계 60톤은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에 직접 판매되도록 할 것이며, 생산자 단체인 본회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므로서 유통 현대화에 기여할 뿐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며 특히 생산자는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증산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93년 올해에는 계약재배 사업확대 실시 계획을 이미 농민관계 3대 신문에 광고한바 있습니다. 예상 물량은 약 5백여톤으로 추산되며 금액은 60~70억원의 의욕적 사업을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생약재 재배 농가 여러분, 시·도 지부장 및 각급 분사무소장 여러분, 93년 우리의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분야를 튼튼하게 키워 주는 역할이요, 나아가서는 개방시대의 국가 무역적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생약재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소비규모 또한 년 2~3천억원의 소비시장이 있으므로 농가 육성 작목으로 지정해 주고 농어촌 구조 조정 사업비를 생산, 가공 유통사업에 더 많이 지원 배정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희망하면서 관계 기관에 감히 건의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잠업 특작 사업계획의 일환인 재배 시범포를 각도 단위로 9개소 설치하여 대생산 농가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생산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도 정부에서 1차 지정고시한 바 있는 생약 주산단지 25개지역, 11개 품목과 병행하여 본회에서도 이에 부합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고시토록 추진하면서 기계화 및 기업 영농으로 전환해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본회가 앞장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차 총회를 위하여 지난 2월 이사회를 소집하고 지난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안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내놓았으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검토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중요 한약재와 휘귀 멸종 품목등을 선별하여 대중성 품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목적을 두고 지난 2월 발족시킨 바 있는 생약 기술연구위원회는 앞으로 많은 생약 분야를 위하여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위원으로 모신 저명 학자님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상 상세한 설명은 기 배포한 유인물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설명하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회원이 염원하시는 사업의 성취와 가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가름하고저 합니다.

1991·3·31
會長 宋景太

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93년 생약재 쿼타 조정회의 개최：協會는 지난 4월19일 보사부→농림수산부로부터 검토지시된 쿼타안을 놓고 상당기간 자료수집과 의견취합을 해오다 최종안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생산 농민대표인 강원 정선지역대표 최윤철외 2인(황기관련) 평창지역대표 박증숙외 7인(당귀관련) 충남 청양지역대표는 조병섭외 1인(구지자관련) 기타 각지역 주요생산품목 도합 21명을 초빙코 최근의 현지 유통실태 및 현지사정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한바 있으며 이는 집약되어 관계부처에 건의될 것이라고 한다.

○4월24일 참다래(주) 준공식참석：본회 황인구 부회장은 전근택 총무부장을 대동코 전남 해남 주제 참다래(주) 준공식에 참석 수출을 전담임무로 하는 회사 현황 및 전모를 견학한 바 있다.

▲傘下支部

경남지부회의： 김창한 지부장은 지난 4·15일 진주시에서 月例支部회의를 召集하고 기간중 생약유통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와 중앙지시사항 철저 이행등을 다짐한바 있다. 이날 지부회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사업계획의 일환인 시범포설치 철저 이행과 결과보고 조기종결。(거창(천궁) 및 하동(현호색))
2) 지부산하 생산현황 파악 철저 이행。
3) 도지부 자체 정관 일부 개정 ●정기총회 매년 3월5일로 ●회원유고시(사망, 이민, 타도이사, 자퇴)회원수로 풀이하여 자산환급。 ●정기총회 포함 연속 3회 불참시 회원자격제명 등。

전남 지부회의： 정형모지부장은 지난 4·16일 영암에서 정례지부회의를 소집하고 기간중 이지역 생약유통실태 및 재배작황에 대하여 상호정보교류 하면서 금년도 지부산하 사업추진 방향과 발전책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전북지부회의： 김종근 지부장은 지난 4·20일 무주군 사무소에서 정례 지부회의를 소집하고 기간중 이지방 생약제유통 정보를 상호 교류하면서 금년도 지부 사업추진 방향 토의 및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이날 검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하 각급사무소에 FAX설치 문제 ●전북도 공판장 활성화 문제 ●본부 계약재배 적극 참여 문제등。

▲全南支部를 찾아서： 現在 本會 中央理事를 겸직하고 있는 全南支部長 정형모씨는 매우 重厚한 외모를 품기면서도 예리하고 섬세한 지도력을 갖춘 이지역 생약분야 선두주자로서 평가받을만한 人物이다. 그는 산하에 계약재배자만도 1천1백74명을 확보하고 있을뿐 아니라 항상 재배지도하는 회원만도 3천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전라남도 지부

이와 같은 회원확보하에 20여개에 달하는 품목을 2백여만평에 걸쳐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삼도시호는 85만평 이상을 계약재배 현재 성공적 수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리고 있고 두충은 년간에 묘목으로 3만평이상 재배지도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본회 生産者의 대표격이기도 하다.

그는 수확예상량과 소득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

삼도시호는 45톤 이상의 수확을 예상하였고 여타 재배품목을 합하여 4백톤 이상은 수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삼도시호 한품목만으로도 8억3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편집부제공)

(祝) 發展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강원도지부

지부장 박영임 (철원군사무소장겸직)
원주시 사무소장 황인구 (본부부회장)
원주군 〃 전승표
영월군 〃 심호섭
춘천시 〃 허수
평창군 〃 함영완 (본부이사)
인제군 〃 이종렬
태백시 〃 우대기
홍천군 〃 박건훈 (공판장장겸직)
삼척시 〃 김시부
양구군 〃 강연백
삼척군 〃 김원복
양양군 〃 김환래
횡성군 〃 조대현 (공판장장겸직)
속초시 〃 임원길
동해시 〃 김정태
화천군 〃 김우원
강원도 공판장장 황성구
정선군 〃 최윤철
평창군 〃 함승주
인제동부 〃 채덕기

1993년 4월 20일